

동작구, 노후 공공부지 활용한 ‘미래형 복합거점’ 조성 시동

동작구(구청장 박일하) 보건소·구민회관 부지(상도동 176-3 일대)가 미래형 복합거점으로 재탄생한다.

구는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안)’이 조건부로 수정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과 개통 예정인 서부선이 연결되는 환승역세권으로,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동작구청 신청사와 함께 장승배기 일대 도시공간 구조 재편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구는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월 기존 보건소를 신축 건물(만양로3길 80)로 이전했으며, 구민회관도 2029년 11월 이전을 목표로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전에 따른 유류 공공부지에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고밀형 노인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동작구의 인구 구조를 고려한 선제적 조치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민간 자본을 활용한 생활SOC 확충형 복합개발 모델로 추진된다. 공공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지역에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

으로 공급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구는 민간의 개발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결합한 민·관 협력 방식을 통해 사업 실행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공공청사 용도에 머물렀던 노후 부지가 지역 성장 여건과 미래 수요를 반영한 복합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며, “단순한 부지 개발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역세권 기능 강화, 생활 인프라 확충을 아우르는 전략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성북구, 미래 인재 육성 위한 ‘2025 진로박람회’ 연다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11월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성대학교 캠퍼스에서 청소년 대상 ‘2025 성북구 진로박람회’를 연다.

올해로 7회를 맞는 진로박람회는 관내 청소년과 학부모 등 2,000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청소년들이 미래 진로와 전공,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관내 대학과 유관기관 등 26개 기관이 함께해 다채롭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박람회에서는 진로체험, 미래기술,

전공탐색, 상상네트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50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한성대학교를 비롯한 관내 4개 대학과 특성하고, 청소년센터, 군(육·해군·해병대), 소방서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며, 반려동물전문가·뮤직아티스트·바리스타·공예가 등 다양한 직업 체험은 물론 VR·AR, 사물인터넷, 미래자동차, e스포츠 등 최신 미래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전공탐색 부스에서는 학과 정보를 확인하며 진학 설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상상네트 부스에서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사진으로 추

억을 남길 수 있다.

학부모를 위한 명사 진로특강도 마련됐다. 유퀴즈온더블럭에 출연한 공근식 교수가 ‘나는 거북이가 되겠습니다(배우에는 나이가 없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특강은 오전 10시 한성대학교 상상관 1층 상상홀에서 열린다.

이승로 구청장은 “성북구 진로박람회가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의 기회가 되고, 자신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서초구 고터·세빛 관광특구, 글로벌 ‘관광 전성시대’ 이끈다

전국 유일 한강을 품고 있는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의 ‘고터·세빛 관광특구’가 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복합문화 관광지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고터·세빛 관광특구는 지하철 3개 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고물물, 신세계백화점, JW메리어트호텔,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등 황금 관광 인프라를 품은 ‘힐플레이스’다. 관광·쇼핑 위주로 조성된 기존 관광특구와 달리 문화와 자연, 레저활동까지 결합된 특

별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잠재력도 남다르다. 구는 이런 풍부한 자원들을 활용함과 동시에 인프라 확충과 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는 두 트랙으로 성장시켜 그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강으로 가는 통로이자 고속터미널과 반포한강공원을 잇는 지하 공공보행도로는 ‘걸으며 즐기는 미술관’으로 꾸며졌다. 스페인·말라가 관광청과 협업한 ‘피카소 벽화’와 24명의 작가가 서울의 하루를 시간대별로 그려 낸 ‘서울의

24시간’ 벽화를 설치해 매력적인 관광거점으로 조성했다.

공공보행도로 내에는 ‘고터·세빛 관광안내센터’를 개소해 편의성을 더했다. 센터에는 영어·일본어·중국어 전문 통역사가 상주하고, 관광객이 많은 4~10월 주말에는 7개 국어 통역이 가능한 자원봉사단을 운영한다. 또, 무인환전기기와 같은 편의시설도 확충해 불편함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서울시, 진접차량기지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시

시,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 안전성·운영체계 점검…철도종합시험운행 후 내년 6월 개통 예정

최대 52대 수용,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등 설치, 철도시설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토)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물 14동과 전차선·송변전·신호설비 등이 있다.

차량기지는 지하철 차량의 정비, 점검, 세척, 주박(대기)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열차의 안전운행을 책임지는 곳이다.

이번 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새로 건설된 노선이나 시설을 실제 운행에 투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 시설별 단계적 점검을 진행한다.

첫 단계인 ‘공중별시험’에서는 궤도·전력·신호·통신 등 분야별로 시공

품질과 안전 성능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이후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는 영업 상태를 가정해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열차를 투입하고, 운전·관제·유지보수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시스템 간 연동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영업시운전’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체계가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실시한다.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철도시설물의 본격적인 영업 운행이 시작된다.

진접차량기지가 운영되면 차량은 2022년 3월 개통된 진접선(4호선 연장, 별내별가람~진접, 14.9km, 3개 역)의 진접역 또는 오남역을 통해 차량기지로 출입하게 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차량기지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철도 핵심 시설”이라며, “개통을 위한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철저히 수행해 내년 6월 안전한 개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아리수, 365일 스마트 수질감시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하게

서울 전역 수질자동측정기 645대 운영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스마트한 수질관리 구현

서울시가 수돗물 수질 감시를 한층 강화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나섰다. 서울 전역 556개 지점에 수질 자동측정기 645대를 운영하여 탁도·잔류염소·pH 등 주요 항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2019년 문래동 수질사고 이후 208개 지점에서 서울시내 모든 행동을 포함한 556개 지점으로 대폭 확대하여 면밀한 수질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실시간 측정된 수질정보는 10초 단위로 수집하고 1분 단위로 감시하여 환경부 먹는물 수질 기준(탁도 0.5NTU 이하, 잔류염소 0.1~4mg/L, pH 5.8~8.5)을 벗어나는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수질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담당직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송되고, 대응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에는 모바일 수질감시시스템 구축으로 현장 대응 능력이 대폭 강화되었



다. 담당 직원이 전용 태블릿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기존에는 아리수본부와 수도사업소 내부 감시망에서만 수질 감시가 가능하여 수질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수질취약지역에는 ‘이동형 수질측정기’와 ‘정체수 자동배출장치’를 도입해 수질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수질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공사장 주

변에는 이동형 수질측정기 24대를 적체적소에 배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체수 배출장치는 수질 기준 초과 시 자동으로 정체수를 배출하는 장치로, 상수도관 끝단에 설치하여 수질 취약지역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체수 배출장치 설치사업은 24년부터 26년까지 매년 20대씩 총 60개소를 설치(사업비 38억 원)할 예정이다.

이장성 기자

뉴스페이스 시대 대응… 데이터 기반 '도시형 우주경제' 육성

28일 우주산업 발전협의회 출범…산학연 의견수렴, 서울시 우주산업 육성계획 논의

서울에서 출발한 스타트업들이 우주를 향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큐브위성을 제작·운영하는 ‘나라스페이스’는 2023년 국내 최초 상업용 지구관측 큐브위성 ‘옵저버 1A호’ 발사에 성공하며 민간 우주기업 시대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 기업은 2022년 서울시 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이후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다.

마곡에 위치한 ‘무인탐사연구소’는 LG 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달·화성 탐사용 탐사로버를 개발하며 주목받고 있다. 오는 11월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에서 자사의 탐사로버가 탑재체 검증을 준비 중이다. 이 기업은 ‘서울 AI로봇쇼-극한로봇존’에 참여하며 서울 기반의 도심형 우주탐사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서울시가 이러한 민간의 기술혁신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우주산업 육성계획」을 공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28일(화) 민간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우주산업 발전협의회」를 출범하고 서울형 도시기반 우주산업 전략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우주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공식 편입하는 첫 단계로 삼고, 오는 2030년까지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간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바이오(2017), 뷰티·핀테크(2021), 로봇·양자·창조산업(2023) 등 미래산업 비전을 지속 제시하며 민간 혁신을 뒷받침해 왔다. 이번 우주산업 육성계획은 AI·바이오·로봇·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데이터 기반 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도시형 우주 경제로 도약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현재 미국(워싱턴·휴스턴), 중국(베이징·상하이), 일본(도쿄), 유럽(파리) 등 주

요 도시들은 데이터 활용, AI 결합, 위성 기반 서비스 확대 등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도시 단위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출범(24)을 계기로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 기업의 첨단부품 탑재와 우주환경 시험이 본격화되는 등 민간 참여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은 국내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 혁신기업이 집적된 도시로, 우수한 인재와 첨단 기술역량을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도시형 우주산업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산학연과의 협업체 운영을 통해 데이터·서비스 중심의 민간 주도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우주경제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장성 기자

